

# 박종홍의 한국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고 성 애\*

## 1. 서론

한국의 전통사상은 일제의 식민통치 36년으로 망국의 원인으로 인식되었고 해방 후 잇따른 미국문화의 급격한 점령으로 역사적 유물로 변해버렸다. 전통사상은 도외시한 채 사람들은 저마다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좇아 배우고 모방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어서 전통사상에 대한 학문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선두에 박종홍(朴鍾鴻, 泐巖, 1903~1976)의 한국사상 연구가 있다.

초창기에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전통사상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보다는 우선 한국사상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자존심 찾기에 급급하였고 위상을 높이는 방법 또한 우선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서양철학과 일치되는 면을 찾는 것이었다. 서양철학을 전공하였던 박종홍은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 이미 서양

---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철학의 요소들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하여 몰랐을 뿐이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사상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그의 한국불교 연구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박종홍이 결코 불교 신도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불교의 학문에 조예가 깊은 불교 전공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불교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고, 연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으며,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고, 이는 그의 한국사상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박종홍의 한국불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sup>1)</sup>에서는 그의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러한 이해가 형성되는 전후 맥락에 관한 보다 깊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사상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상의 한 부분인 불교사상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즉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박종홍의 한국사상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불교부분의 연구만을 살펴봄으로써 비롯되는 일면적인 관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라는 큰 틀 안에서 박종홍이 불교부분에 대한 연구로부터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였는지 즉 한국불교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박종홍의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

1) 김희성, 「열암철학에서의 한국불교사상 연구」, 『현실과 창조』, 열암기념사업회, 천지, 1998; 최유진, 「박종홍의 한국불교 이해」, 『현실과 창조』 2, 열암기념사업회, 천지, 2001; 심재룡, 「동양의 지혜와 선」, 세계사, 1990, 196~203쪽; 조성택, 「불교와 불교학」, 돌베개, 2012, 276~283쪽; 조은수, 「『통불교』담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사 인식」, 『불교평론』 21호, 2004; 박성배, 「원효사상 전개에의 문제점—박종홍 박사의 경우」, 『동서철학의 제문제』, 태암김규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79.

분이다. 실제로 박종홍이 한국불교 연구에서 주목한 다섯 사상가 즉 승랑(僧朗, 450~530경), 원측(圓測, 613~696), 원효(元曉, 617~686), 의천(義天, 1055~1101), 지눌(知訥, 1158~1210)의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위에 서 제기하였던 의문들도 해결할 것이다.

## 2. 한국불교사상 연구의 계기

박종홍은 1959년 4월부터 서울대에서 학계 최초로 「한국철학사」 강의를 시작하였고 연속 4년간 견지하였다. 박종홍은 한국철학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조금 전인 1958년 7월에 『한국사상』 제1집에 「한국사상연구의 구상」<sup>2)</sup>이라는 한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나중에 출판된 저서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서론(序論)으로 수록되는 이 글에는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를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태도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서론적인 구상이 담겨져 있다.

박종홍 스스로도 이 서론적인 구상을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 데 불과한” 시론(試論)이라고 밝히고 있듯이<sup>3)</sup> 연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관점, 태도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산재(散在)해 있는 단편적인 논의들을 재구성하면 한국사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한국사상 연구의 범위에 대한 박종홍의 기본적인 생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아래에 간략하게 살펴본다.

2) 이 글은 『전집』 4권에 「한국사상연구에 대한 서론적인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 『전집』 4권, 「한국사상연구에 대한 서론적인 구상」, 12쪽.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데서 한국사상도 생겨났으며  
.....<sup>4)</sup>

사상이란 원래 인간의 생활 속 깊이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그의 옳은 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자연 민족성, 국민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사상도 하루아침에 그 어느 개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내진 것은 아니다.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이 한반도에서 생을 영위한 우리 선조들이 두고두고 피와 땀으로 싸워 얻은 고귀한 체험의 발로인 것이다.<sup>5)</sup>

한국사상은 한국적 사고방식을 떠날 수 없고 그 독특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한국 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거기에 엄연히 있는 것이요 따라서 한국사상은 없을 수 없다.<sup>6)</sup>

위의 예문으로부터 보면, 박종홍에게 있어서 한국사상은 일단 ‘한국 말’로 사고된 것이고 한국 사람의 삶을 떠나서 한국사상을 생각할 수 없다. 언어에 의하여 사고하고 사고에 의하여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것이니 사상과 사상의 토대인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한국 말’인 것이다. 박종홍은 아무리 좋은 사상일지라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채로”라면 한낱 수입품에 그치고 “어울리지 않는 몸짓을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꼴”이 되고 만다고 한다.<sup>7)</sup>

4)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3쪽.

5)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4쪽.

6)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1쪽. 원문은 “한국사상은 한국적 사고방식을 떠나지 않을 수 없고”인데 논리적인 맥락을 따져보면 “한국사상은 한국적 사고방식을 떠날 수 없고”이므로 여기서는 고쳐 쓴다.

7)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2쪽.

여기서 ‘한국 말’이란 한국 사람들이 삶과 사유를 표현해온 언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근대 이전까지는 한문이었고<sup>8)</sup> 근대 이후에는 국한문 혼용 방식이었다. 한문은 결코 한국만의 언어가 아닌 동아시아의 공통된 지적 매개 언어였기 때문에 한국사상의 특색을 보장해줄 수 없고 오히려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적 담론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sup>9)</sup>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똑같은 언어라고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사상도 비슷하다는 법은 없다. 사상의 토대인 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니 말이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로 소화 흡수된” 한국사상으로 박종홍이 실제로 주목한 것은 크게는 유학사상과 불교사상이었다. 그는 두 가지 사상 모두 오랜 시간의 전래와 수용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흡수됨으로써 한국사상으로서의 사상적인 독자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작게는 여기에 유·불·선 삼교를 종합하여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과 주자학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문제와 생산·기술적 문화에 필요한 객관적 지식을 주장한 실학사상을 포함시키는 정도였다.

그중에서도 박종홍이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이 바로 불교사상이었다. 이는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는 기독교와의 관련을 무시하고 서양사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불교의 영향을 떠나서 한국사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여겼다.<sup>10)</sup> 왕실의 신앙으로 불교사상의 발전이 눈부셨던 삼국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

8)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기존의 한문체, 차용체(借用體)에 국문체와 국한문체를 함께 사용하였지만 표기법에서는 한문이 주류였으니 말이다.

9) 조성택, 『불교와 불교학』, 돌베개, 2012, 281~282쪽 참조.

10) 『전집』 4권, 「한국의 철학」, 24쪽.

고 유교가 국교로 정해지면서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으로 불교는 여지없이 탄압되었던 조선시대에도 불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으며 심지어 해방 후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인과응보 등 사상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종홍의 이러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래에 살펴본다.

### 3. 한국불교사상 연구의 목적

박종홍은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서론—난제와 의도」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상사라고 하면 널리 정치·경제·문학 등에 관한 것, 특히 사회사상사까지도 연상될는지 모르나 이것은 그런 광범위한 것이 못되고 철학적인 면, 그것도 나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11)</sup>

사상사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난점을 가졌음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학적 이론의 전개를 추궁하여야 할 철학사를 써 보려고 함은 거의 무모한 모험 같기도 하다. 시도적인 미정고나마 읽어 보고 싶은 염두만은 오래전부터 간절하였으나, 이 역시 분에 넘친 욕심이 아닌가 매우 주저된다. 그런 만큼 이 활자화될 일련의 글은 연구 발표물이라기보다도 나 자신이 알고 싶어서 해매고 있는 과정 자체를 그려 보려는 것이요, 가능한 한 선인들 자신의 업적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이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서 따졌다고 볼 수 있는 것만을 추려서 다루기로 한다. 철학적 견지에서 이것은 어디 내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

11) 『전집』 4권,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머리말, 59쪽.

라 오히려 알면 알수록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된 것이라든지 적어도 창의적인 면을 간직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하여 보기로 한다. 따라서 나의 서술은 우리 철학사에 있어서 높은 봉우리로부터 높은 봉우리로 그의 빛난 웅자(雄姿)를 우선 밝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수한 지식층의 수준 높은 사색의 자취를 주로 더듬게 될 것이다.<sup>12)</sup>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박종홍은 단지 철학적인 면에서 그것도 본인 스스로 보기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한국사상사를 구성하려 하였다.<sup>13)</sup> 결국 우리 철학사에 있어서 높은 봉우리의 웅위한 자태를 밝혀보고자 시도하였는데 그야말로 특수한 지식층의 철학적 견지에서 볼 때 그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더러 동시에 세계성과 창의성을 지닌 사상만을 선별하여 살펴본 것이 그의 불교사상 연구였다.

이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지적처럼<sup>14)</sup> 한국사상의 정립을 위한 불교사상

12) 『전집』 4권, 「서론—난제와 의도」, 62쪽.

13) 박종홍 자신도 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가 시도한 것은 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한국철학사에 있어서 몇몇 뛰어난 인물의 사상을 밝혀보려고 시도한 한국 사상사지 결코 한국철학사가 아니다. 한국철학사로 오인하고 있는 연구가 더러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로 심재룡의 『동양의 지혜와 선』(세계사, 1990, 196~203쪽)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사상사와 철학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 12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박종홍은 사상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적 이론의 전개를 추구한 것이 철학사라고 여긴 것 같다. 더 이상의 논의는 본고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14) 김희성, 「열암철학에서의 한국불교사상 연구」, 『현실과 창조』, 열암기념사업회, 천지, 1998, 255쪽. 최유진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상의 정립을 위한 한국 불교의 연구라면 비판적인 접근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최유진, 「박종홍의 한국불교 이해」, 『현실과 창조』 2, 열암기념사업회, 천지, 2001, 187쪽).

의 연구라면 “보다 대답하고 적극적이며, 나아가서는 비판적이어야 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단지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우거나 찬양만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박종홍 자신도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상의 뛰어난 부분만을 밝혀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려면 그때 당시 학계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박종홍은 8·15 해방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이고 자유롭게 서구 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무조건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무력한 지성인들이 서구의 새로운 사조는 유일한 진리인 양 쫓아가느라 바쁘지만 정작 우리의 것에는 관심조차도 가져 본 일이 없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그릇된 사상적 풍토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배워들임에 있어서 허심탄회 용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분명히 알려면 나 자신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고 반문한다.<sup>16)</sup>

결국 박종홍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하여 불교사상을 연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철학적인 면”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양철학적인 면이다. 박종홍은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한국 사람의 철학적인 사색에 대한 소질과 역

---

15) 박종홍은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처음부터 하나의 저술로서 집필하였다기보다는 나 자신 알고 싶은 일념에서 오랜 동안 더듬어 온 자취인 것이요, 따라서 서술의 양식조차 제대로 통일되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런대로 우리의 선인들의 사상적인 깊이에 부딪쳐 이것을 밝혀 보고자 내 판에는 노력하였다.” 이로부터 박종홍은 글을 쓰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사상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전집』 4권,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머리말, 59쪽).

16) 『전집』 4권, 『한국철학과 한국불교』, 198쪽.



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sup>17)</sup> 그래서 의도적으로 철학적인 사색이 돋보이는 “높은 봉우리”를 선택하였고 “빛난 웅자(雄姿)”에 대하여 밝히면서 서양철학적인 분석에 치중하였다.<sup>18)</sup>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4. 한국불교사상의 내용

박종홍의 불교사상 연구의 결과물은 차례로 「기고에 즈음하여」(1960. 4),<sup>19)</sup> 「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1962. 8), 「원측의 유식철학」(1962. 12), 「원효의 철학사상」(1963. 8, 1964. 4), 「나말·여초의 정신적 추세」(1966. 6), 「의천의 교관병수와 주체적 전통」(1968. 7), 「지눌의 사상」(1972. 8)으로 『한국사상』 제3집부터 제10집에 연재하였다.<sup>20)</sup> 아래에 다섯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박종홍의 서양철학적인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박종홍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밝힌다.

17)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93쪽.

18) 조은수는 박종홍이 이처럼 불교의 철학적 성격이라는 다소 혁명적인 개념을 불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영역에 도입한 것을 한국 불교학계에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 평가한다(조은수, 「'통불교' 담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사 인식」, 『불교평론』 21호, 2004, 42쪽).

19) 『전집』 4권에는 「서론—난제와 의도」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0) 여기에 머리말(1972. 9. 1)을 추가하여 함께 묶어서 서문당에서 출판한 것이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이다.

## 1) 승랑

승랑이 북토(北土)에서 일찍이 삼론 사상을 배운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증론, 십이문론, 백론, 기타에 관한 해석 정도이었을 것이요, 그 전체를 일관하는 근본사상을 천명하여 뚜렷한 삼론종의 기초를 확립한 것은 승랑 자신의 강한 사색력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 삼론종 중흥(中興)의 조(祖)라고도 하거니와 삼론종이 길장에 이르러 대성한 것이 라면 승랑은 그 삼론종의 선구라고 하여 타당할 것이다.<sup>21)</sup>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박종홍이 승랑을 삼론종의 선구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승랑의 강한 사색력때문이었다. 박종홍에 의하면 이러한 사색력은 그의 독특한 인식방법인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에 가장 잘 나타난다. 그는 이제합명중도를 진제(正)와 속제(反)가 변증법적으로 지양, 심화되어 궁극적인 진리인 절대 중(合)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이제합명중도설이 변증법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설명된 것으로 본다.<sup>22)</sup>

그러면서 박종홍은 길장(吉藏, 549~623)의 방언(方言)에 의거하여 세 종류의 이제각론중도(二諦各論中道)와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로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인식의 깊고 얕음(深淺)에 따라 원리적으로 구분한 세 종류의 진제와 속제와 관련시켜 살펴보고 있다.<sup>23)</sup> 여기서 기존의 연구 중의 하나가 바로 박종홍이 글의 맨 끝부분에 따로 적은 부기

21) 『전집』 4권, 「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 68쪽.

22) 『전집』 4권, 「한국철학과 한국불교」, 194쪽.

23) 『전집』 4권, 「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 69~71쪽. 이제합명중도설에 대한 김잉석의 분석과 박종홍의 분석을 비교해보면 김잉석의 것은 자세하고 조리 있는 반면에 박종홍의 것은 의도적인 해석인 만큼 다소 간략하고 허술하다.

(附記)에서 밝히고 있는 김익석<sup>24)</sup>의 논문「고구려 승량과 삼론학」<sup>25)</sup>이다.

박종홍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그는 “김 교수의 이 논문은 특히 방언에 의한 삼종이제중도(三種二諦中道)를 알뜰하게 밝히고 있”음을 인정한다. 즉 승량 전공자의 전문적인 연구인만큼 불교학적 차원에서 볼 때 더욱 타당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홍은 삼종이제중도가 인식이 깊어지는 원리에 따라 설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제합명중도의 인식의 깊이를 강조함으로써 승량의 철학적인 사색의 깊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박종홍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원측

박종홍의 철학적인 사색에 대한 주목은 승량에 이어 원측에 대한 연구에서도 돋보인다.

유식철학을 오직 그 당시에 성행하던 세친의『유식삼십송』에 관한 십육론사의 해설서로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구나 그들 제설을 합유(合糅)하여 만들어졌다는 성유식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유식사상의 근원으로 소급하여 해심밀경을 특히 중요시함으로써 그의 소를 찬술(纂述)한 것부터가 원측의 철저한 근본적 태도를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역시 유식과 관계가 깊은 유가론의 소를 지었음에도 그 의도는 유

24) 김익석(金鈺石, 玄石, 1900~1965)은 1931년에 교토 류코쿠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고 귀국 후 혜화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1946년에 동국대학교 교수로 되었으며 도서관장, 불교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불교학자로서 특히 화엄종과 삼론종의 이론에 밝았다. 저서로는 『현수교학에 있어서 연성이기론』, 『화엄학개론』, 『삼론학의 진리성과 그 역사성』, 『불타와 불교문학』, 『불교학개론』이 있다.

25) 『백성옥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백성옥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 1959)의 41~68쪽에 실려 있다.

식철학의 정치(精緻)심오(深奧)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동시에 원측의 근본적인 연구태도는 예리한 논리로써 일관되고 있음을 주의하고 싶다. …… 서장어(西藏語, 즉 티베트어)로 된 원측의 인명(因明) 논리에 관한 저술이라도 발견되면 우리의 선인이 남긴 유일의 현존 논리학서가 될 것이다. 원측의 박인방증(博引傍證)으로서 전개되는 이론은 그 인용되는 경이나 논소가 얼마나 많은 종류에 이르고 있는가를 주의함으로써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이거나 치밀한 분석은 매양 거듭된 위에 또 거듭되어 긴장하여 문맥을 찬찬히 붙들지 않으면 따라가기조차 힘들게 되어 있다. 명석한 논리적 두뇌를 가진 원측이었음이 틀림없다. 서양 철학에서 현상학을 시작하여 순수 의식의 분석을 한 후설이 연상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26)</sup>

위 예문에서 박종홍은 원측이 『해심밀경』 소를 지은 것으로부터 유식사의 근원을 파헤치는 철저한 근본적 태도를 보았고 원측의 글에 수많은 종류의 경과 논소가 인용되고 있는 것(博引傍證)으로부터 해박한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예리한 논리”로 일관된 “치밀한 분석”으로부터 원측이 “명석한 논리적 두뇌”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한다. 박종홍이 얼마나 원측의 논리적인 분석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위 예문의 하단에서 박종홍은 이러한 의미를 정리하면서 “순수 의식의 분석을 한 후설이 연상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다. 순수 의식의 현상학이라고도 불리는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선형적 현상학은 일상적인 자연적 태도를 괄호 속에 넣어두고 남은 순수의식의 본질을 지향성, 즉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이러한 순수의식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원측의 아뢰야식에 관한 이론과 유사한 점

26) 『전집』 4권, 「원측의 유식철학」, 88~89쪽.

을 쉽게 찾을 수 있다.<sup>27)</sup> 박종홍은 “아뢰야식, 더 나아가 제9식에 관한 이론 등 오늘의 서양철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현상학적인 치밀한 분석을 의식에 관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본다.<sup>28)</sup>

박종홍은 원측의 철학적인 사색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자은종파의 강렬한 질투를 유발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본다. 그는 원측의 유식철학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편폭을 할애하여 원측이 자은종파(慈恩宗派)의 시기와 반발을 받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글 전반에서 자은종파를 의식하면서 자은종파와의 비교를 통하여 원측의 사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자은종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보다 자연스럽게 원측의 훌륭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박종홍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 3) 원효

원효는 박종홍이 불교사상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였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승랑의 삼론종이 중론·십이문론 등에 입각한 것이라면 원측의 유식사상은 해심밀경을 비롯하여 유가론이나 섭대승론의 사상계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원효는 바로 삼론과 유식의 사상을 그의 화쟁의 논리로써 지양한 것, 다시 말하면 승랑과 원측의

27) 후설의 현상학과 원측의 유식사상의 비교에 관해서는 한자경의 「후설 현상학의 선협적 주관성과 불교 유식철학의 아뢰야식의 비교—선협적 주관성의 구성작용과 아뢰야식의 전변작용을 중심으로」(『철학과 현상학 연구』 9집, 1996, 187~208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28) 『전집』 4권, 『한국철학과 한국불교』, 195쪽.

사상을 보다 심오한 근본적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화합시킴으로써 장차 전개하여야 할 한국 불교, 나아가 전 불교 사상의 올바른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입파(立破)와 여탈(與奪)의 자유로운 구사에 착안한 원효의 논리적인 두뇌와 역량의 소치이었음을 주의하게 된다.<sup>29)</sup>

위 예문은 한 마디로 한국 불교의 올바른 방향을 명시한 사람이 바로 원효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여러 종파의 사상(그 중에서도 특히 삼론과 유식의 사상)을 섭취하고 지양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화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종홍은 원효가 자신의 철학적인 사색에 근거하여 화쟁의 논리를 도출해냄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무수한 논란을 빚어오던 백가의 이쟁(異諍)을 화합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을 원효의 최대 업적으로 보았다.

위 예문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박종홍은 원효가 화쟁의 논리로서 중관학과 유식학과의 모순을 해결한 것을 “입파와 여탈의 자유로운 구사에 착안한 원효의 논리적인 두뇌와 역량의 소치”라고 보았다. 원효는 식(識)을 말한 유식학과의 특징을 ‘세움(立)’으로, 공(空)을 말한 중관학과의 특징을 ‘깨트림(破)’로 보면서 유식은 ‘여(與)’만 알고 ‘탈(奪)’을 모르고 중관은 ‘탈(奪)’만 알고 ‘여(與)’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모든 쟁론(諍論)이 그치지 않게 되는데 사실상 석가의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에서 수많은 설들이 펼쳐지고 그 수많은 설들은 결국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귀결된다고 하면서 모순과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화쟁사상이다.

29) 『전집』 4권, 「원효의 철학사상」, 101쪽.

박종홍은 원효의 입파와 여탈의 자유로운 구사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다름 아닌 개합(開合)이고<sup>30)</sup> 개합의 논리는 원효의 저술 속에서 자유롭게 구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어 있는 점에서 개합의 논리의 학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개합의 논리로 『십문화쟁론』을 창조적으로 저술함으로써 비로소 개합의 논리가 화쟁의 논리로 진수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한다.<sup>31)</sup>

나아가 박종홍은 화쟁의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십문화쟁론』이 일부 분밖에 남아 있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원효에 대한 연구가 철학적으로 정밀하게 전개되면 변증법적 논리에 어떤 새로운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sup>32)</sup>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원효의 일심(一心)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왜냐 하면 원효는 진제와 속제의 불이 중도를 상징하고 그것을 일심과 동일시함으로써 중층적 이제설 즉 변증법적 논리에 의하여 무한하게 반복되는 논리 전개를 중단시키고자 하였다.<sup>33)</sup> 때문에 일심에 대한 연구는 변증법적 인식방법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상응하게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박종홍은 화쟁의 논리를 원효의 철학을 일관하고 있는 사상으로 파악하고 원효의 논리적인 사색의 핵심임을 내세운다. 박종홍에 의하면 이러한 화쟁사상은 그 뒤 의천에 의하여 발굴되고 계승됨으로써 한국불교

30) 위의 설명을 따르면, 개(開)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에서 수많은 설들이 전개되는 것이고 합(合)은 수많은 설들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종합되는 것이다.

31) 『전집』 4권, 「한국철학과 한국불교」, 194~195쪽.

32)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95쪽.

33) 유용빈, 「원효의 이제설 연구: 삼론학의 계승과 극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27~28쪽 참조.

의 기본적인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sup>34)</sup>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본다.

#### 4) 의천

실로 의천은 그의 연구경력으로나 사상 내용으로 짐작되듯이 어느 종(宗) 일교(一敎)만을 편중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종합 통일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말년에 천태종을 중흥 진작시키려고 하였음은 교종과 선종을 다리 놓아 융회(融會)시킴에 있어서 좌선 지관의 수행을 중시하는 천태교관이 보다 포괄적이며 선종과도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점이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시대의 변천을 따라 선종이 도입되어 어느 의미에서 교종과 대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태도의 천명(闡明)이 요구되었고 그에 응하는 의미에서도 교관병수(敎觀并修)의 총화적인 자세를 밝힐 필요가 있음직하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의천의 교관병수사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화쟁불교의 정신을 살려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라 하겠다.<sup>35)</sup>

위 예문에 나타나 있듯이 박종홍은 의천이 특정된 종파나 교에 치우치지 않고 선종과 교종의 융회를 시도하면서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함으로써 교관병수의 총화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의천이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라는 특수한 시대적인 맥락에서 원효의 화쟁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그의 교관병수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박종홍이 원효의 사상이라는 보석을 발견해냈을 뿐더러 같고 닮음으로써 반짝반짝

34) 조은수는 당시 한국 사회의 처지와 결부시켜 보면서 화쟁사상을 새로운 도덕 원리로 고취하고 원효의 철학을 여러 이견과 분열을 화합하는 한국적 사례로서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조은수, 앞의 글, 42쪽 참조).

35) 『전집』 4권, 「의천의 교관병수와 주체적 전통」, 148~149쪽.



빛을 발하게 한 점에서 의천의 업적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종홍에 의하면 보석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높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발견해낸 보석을 깔고 닦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깊이가 또한 창의적인 극치에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고투(苦鬪)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종홍은 원효의 뛰어난 업적을 발견하고 또 “원효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주체적인 전통을 찾아 확립하려고 한” 의천의 철학적 사색과 방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36)</sup>

여기서 원효의 화쟁의 논리와 화쟁의 논리를 새로운 시대적 맥락, 즉 선종의 도입과 동시에 선종이 교종과 대립적인 양상을 이루는 상황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의천의 교관병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특정된 어떤 종파에 구애되지 않고 각자의 철학적인 사색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종합·통일하고자 시도한 결과 각자 자신의 독특한 사상으로 강조된 것이다. 박종홍은 이러한 종합·통일의 측면을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또한 박종홍은 원효의 올바른 전통을 찾아서 확립시키는 동시에 의천이 주체성을 적어도 정신적인 면에서 선양하고자 시도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이는 자신과 똑같이 전통의 계승을 고민하고 있던 의천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던 박종홍의 목적의식과 결부시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홍은 실제로 유학사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체성의 확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구성하고 있다.<sup>37)</sup>

36)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51~152쪽.

37) 주체성의 확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집』 6권의 「주체성의 문제」, 「민족적 주체성—그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요 힘이다」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학사상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다.

## 5) 지눌

지눌은 박종홍이 불교부분 연구에서 원효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던 인물이다. 지눌에 대한 연구에서도 박종홍은 그의 철학적인 사색에 주목하면서 화쟁의 논리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효에 있어서 화쟁의 논리가 그의 전 사상을 일관한 것이라면, 지눌에 있어서는 반조의 논리가 그의 신해 전체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반조의 논리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쟁론(爭論)을 보다 고차적인 입장에서 화해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파고들어 쟁론무용(爭論無用)의 밑바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하겠다.<sup>38)</sup>

위 예문으로부터 박종홍이 지눌의 반조의 논리를 화쟁의 논리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쟁론무용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효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쟁론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화쟁이라면 지눌은 이러한 쟁론의 승부 자체를 부정한다. 지눌에 의하면 중생들의 번뇌와 무명과 여러 가지 환화는 모두 여래의 보광명지(普光明智)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반조 즉 중생인 내가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박종홍은 이렇게 반조에 의하여 자신이 곧 부처라는 신념을 찾게 되고 이로부터 중생과 불이 본래 동체임을 밝히기 위한 수행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선(禪)과 더불어 해오(解悟)와 이통현의 화엄론에 심취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39)</sup> 그는 반조의 논리를 지눌의 사상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

38)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58쪽.

39) 위와 같은 책, 같은 글, 167쪽.

로 보면서 지눌의 사상이 철학적인 성격을 띠게 된 이유 또한 반조의 논리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박종홍이 이와 같이 반조의 논리에 주목하면서 굳이 화쟁의 논리가 발전된 형태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사상적으로 보아 고려의 지눌은 신라의 원효와 아울러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높은 두 봉우리의 하나다. 고려의 의천은 교관병수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원효를 성자로 추앙하였거니와 지눌 또한 자기 사상의 중요한 대목을 밝힘에 있어서 원효의 설을 인용하는 일이 많았다.<sup>40)</sup>

위 예문을 통해서 박종홍이 지눌과 원효를 사상적으로 동등하게 보면서 의천이 원효의 훌륭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지눌 역시 원효의 사상에 주목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효가 화쟁의 논리로서 승랑과 원측의 사상을 화합시킨 것으로 파악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박종홍은 승랑에서 지눌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사상적 연속성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반조의 논리를 화쟁의 논리가 심화된 형태로 보는 관점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종홍은 다소 과감한 주장임에는 틀림없지만<sup>41)</sup> 원효의 화쟁사상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의천에 의하여 계승·발양되어 교관병수의 사상으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눌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심화됨으로써 반조의 논리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지눌에 이르러 선과 교를 아우르

40) 『전집』 4권, 「지눌의 사상」, 157쪽.

41) 조성택은 한국 불교의 화쟁 정신이란 것이 원효로부터 지눌,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지눌에게서 원효의 화쟁 사상에 대한 언급이나 원효를 사자상승(師資相承)하는 법제자나 사상적 계승자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한다(『불교와 불교학』, 돌베개, 2012, 280쪽).

는 한국 불교의 포괄적인 수행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한다.

## 5. 한국불교사상의 의의

이상에서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로 소화 흡수된”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박종홍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이 바로 불교였다. 그는 불교사상과 한국사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면서 왕실의 보호를 받았던 전성기나 숭유억불정책으로 탄압되었던 침체기를 막론하고 전래되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상에 대한 불교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박종홍은 서양사상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 전통사상에는 하등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당시의 지성계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나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단지 불교사상의 철학적인 면에 주목하면서 철학적인 사색이 돋보이는 다섯 사상가를 선택하였고 구체적인 사상에 대하여 연구에서도 철학적인 사색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박종홍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 사람의 철학적인 사색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박종홍은 승량의 독특한 인식방법으로 이제합명중도를 내세우면서 변증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설명된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자은종파와의 비교를 통하여 원측의 아라야식 나아가 제9식에 관한 이론을 현상학적인 치밀한 분석에 의하여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원효에 대한 철학적인 정밀한 연구로 변증법적 논리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는가 하면 원효의 화쟁의 논리를 계승하여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사색으로 교관병수의 사상을 내세운 의천과 화쟁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지눌의 반조의 논

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다섯 사상가의 철학적인 사색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박종홍은 특히 원효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의천에 의하여 알려지고 계승되고 발양되는 화쟁사상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화쟁사상으로부터 특정된 어느 종파에 제한되지 않고 독자적인 창의력에 근거하여 모든 이설(異說)들을 종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특색으로 발휘되었던 점에 착안함으로써 종합·통일의 측면을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박종홍은 “불교문화도 유교문화도 우리 민족의 생활이념에 의하여 여과 섭취됨으로써 그 정수가 하나의 새로운 종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독자적인 우리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sup>42)</sup> 유교사상에서도 똑같이 성실(誠實)사상의 도의적인 면과 실용후생의 산업적인 면을 종합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불·도 삼교를 종합·지양한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42) 『전집』 5권, 『한국사상의 방향』 4쪽.